

디자인 권리 보호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

2005

디자인진흥원사

- 디자인기술 로드맵 개발
-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 제1회《국회 공공디자인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한국 디자인사

- 「디자인보호법」 시행(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 글자체 디자인보호법 보호 대상 포함)
-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
- LG 초콜릿폰 출시
- 삼성 이건희 회장 밀라노선언
- 아모레퍼시픽 '아리따 둘째' 개발
- 4대공 안내판 디자인 개선사업 시작
- 국회공공디자인문화포럼 창립
- 한국여성디자이너협회 창립

한국 사회사

- 청계천 복원 사업 완료
-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 APEC 정상회담, 부산 개최
- 황우석 출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 HD TV 송출 개시
- 문화부 공간문화과 신설

디자인권(The Right of Industrial Design)이란 '디자인권자가 업(業)으로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디자인'은 '예술 저작물이 아닌 상품에 관한 심미적 창작을 지칭하는 것'으로 산업디자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상품거래 질서를 세워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부여된 권리이다.⁶²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디자인 권리를 처음 보장한 법은 일본의 의장법을 모델로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의장법」이다. 이 법은 1990년 1월 전면 개정을 포함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의장'이란 용어는 그대로 사용되었다.

2005년 7월 1일 시행된 「디자인보호법」은 여기서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재고하고 디자인의 창작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한 것이 그 입법 배경이다. 또한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게 한 것도 큰 변화였다.⁶³

KIDP는 이러한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고 디자인 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균질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순차적으로 디자인법률자문서비스 시행,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디자인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운영, 디자인용역 대가기준 수립 추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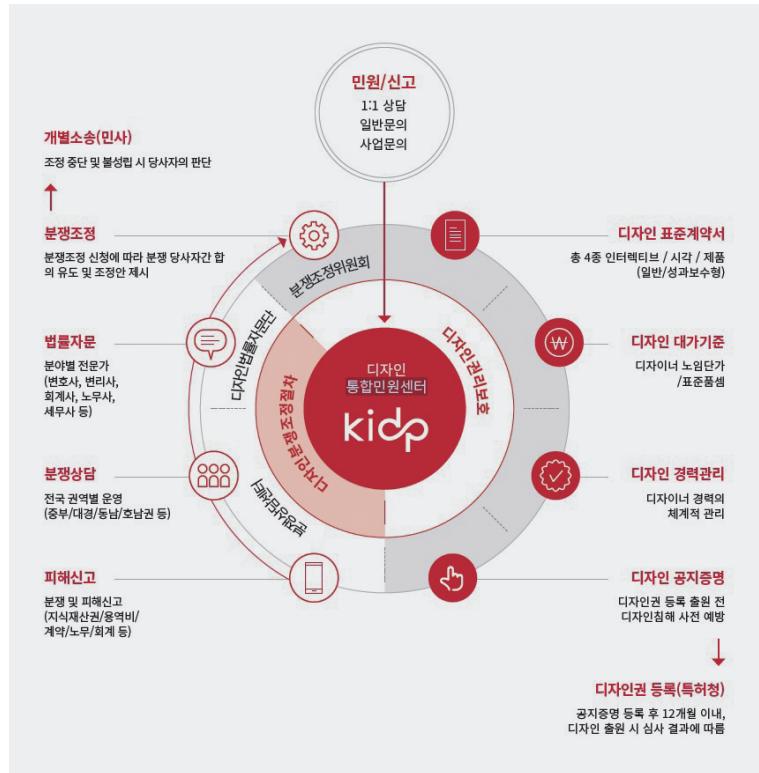
우선 디자인법률자문서비스는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 재산권 분쟁 등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자문을 해주는 서비스다.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 7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디자인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조정 기구로, 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쟁에 대한 조정안 작성이 이루어진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디자인표준계약서 또한 디자인산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결과물이다. KIDP는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과 제품디자인과 관련된 성과 보수 등 총 4종의 디자인표준계약서를 온라인(drights.kidp.or.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공지증명은 권리화되지 않는 디자인이라도 간단한 신청 절차, 저렴한 비용으로 디자인 창작물을 공지하여 타인이 무단으로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2019년에는 디자인권보호에 대한 웹 드라마 '신박컴퍼니'를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산업에 대한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이너의 건강한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콘텐츠로 웹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디자인권리보호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다. 여기에는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디자인 권리 보호 이슈에 관한 내용을 디자인 기획, 디자인권 출원, 등록, 해외 디자인 출원, 등록, 디자인 계약, 분쟁 시 대응이라는 단계별 교육 콘텐츠로 담았으며, 실제 피해 사례 등을 웹 드라마로 구성해 시청자가 쉽게 접근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디자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디자인 권리가 보호받는 문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건강한 디자인 생태계를 이루고자 KIDP가 운영하는 이러한 디자인권리 보호 제도는 2018년 문을 연 디자인통합민원센터(drights.kidp.or.kr)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다. 2019년 3월에는 제값 받는 디자인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열었으며, 2019년 12월 실비정책가산방식을 적용한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창작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이 고시되었다.



디자인권리보호에 관한 웹 드라마「신박컴퍼니」장면, 2019